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9호 【루게 제 24562호】 주제 103 (2014)년 5월 29일 (목요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황병서동지, 변인선동
지, 마원춘동지가 동행
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를 건설에 동원된 군부
대지휘관들이 맞이하
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올해 1월 국가과학원
에 대한 현지지도로
마치신 길로 연봉호를
찾으시고 지난해에 몸소
잡아주신 과학자휴양
소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주시였으며 설계와 자재보장
대책을 일일이 세워주시였을뿐아니
라 건설에 조선인민군 제 267군부
대를 투입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에 따라 5월초부터 건설을 시작한
군인건설자들은 불과 20여일 사이에
기초축착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골조
공사에 진입하여 총공사량의 30%
를 해제기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하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숲이



모래를, 수륙선 아래쪽
에는 자갈을, 주차장과
산보길에는 청석을 깔아
주는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열
에 의한 냉난방체계를
세워주기 위한 사업과
가구비품제작을 따라세
우며 휴양소운영준비도
착실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제 267군부대
의 군인건설자들이 과
학자휴양소를 일떠세
우면서 건설에서 새로
운 비약의 속도를 창조
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속도면 당에서 과

무성하던 곳에 골조들이 우후죽순처
럼 솟아오르고 화선선전, 화선선동으
로 들쭉이는 건설장을 보시며 조선
인민군 제 267군부대의 전투장은
분위기부터 마음에 든다고, 역시
군인부대, 영웅부대답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장
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휴양소를
손색없이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
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에서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는 휴양소의 모든
건물과 시설들을 사회주의문명국의 체
모에 맞으며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수
있게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자휴양소 문주도 특색있게 세우
고 휴양생들이 오가는데 불편이 없도
록 가까운 곳에 철도역도 잘 건설하여
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배우고 정구, 바드민톤을 할수 있게
꾸리고있는 야외운동장을 겨울에 스케
트도 할수 있게 다용도체육시설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휴양소에 실내수영
장도 잘 건설해주고 록화물방영실과
담시터도 꾸려주며 목욕탕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도 그촌하게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휴양소를 건설하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것과 함께 환경정리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잔디를 많이 심을뿐아니라
휴양소주변에 포도나무다락밭도 조성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휴양소구내의 수륙선
우측에는 하안

학자들과 약속한 날자에 휴양소를
완공할수 있을것이라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 267군부대는 당
에서 맡겨주는 그 어떤 임무도
최상의 수준에서 결사관철하는
최고사령관의 전투부대, 힘있는
척후대, 우리 나라의 건설교육자
부대라는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자휴양소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를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라고 하는것은 군부대가 나라의 방방곡곡에 일떠세운 건축물마다에 자기 손으로 조국의 재부를 늘인다는 자각, 후대들에게 손색이 없는 건축물들을 남겨주려는 군인건설자들의 소중한 마음들이 어려웠을 뿐만아니라 우리 당의 건축미학사상이 집대성되어있기때문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의 투쟁기풍과 일본새를 모든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따라배워야 한다고, 군부대의 건설장을 돌아보면 군인건설자들의 마음을 읽을수 있을것이며 그들처럼

일할 결심을 굳히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건설장을 떠나시기 위해 연풍호기슭으로 나오시자 군인건설자들은 격정을 터치며 목청껏 《만세!》를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멀어지는 배를 따라가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가 당의 의도를 실천으로 받들어감으로써 과학자휴양소 건설을 훌륭히 완공하여 과학자들에게 안겨주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백두산철새위인들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이천군 신당 축산전문협동농장 선동원 박연화와 그의 남편 리광렬은 지난 20여년간 부모없는 43명 아이들의 친부모가 되어 뜨거운 진정을 바치고있다.

당초급선진일군으로서 당의 농업혁명 방침관철에 헌신하여온 박연화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모두를 한집 그늘없이 여세계 키웠으며 많은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와 사회주의건설장들에 내세움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 사회의 미덕을 활짝 꽃피웠다.

지난 기간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높이 모시는 사업에 앞장선 인민대학습당 편집원 문홍기는 철명아배 사파바다를 펼치는데 기여할 일념안고 대규모파일생산지건설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을 힘껏 지원하였다.

건설의 대변영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618건설돌격대에 탄원한 금속공업성 노동자 박명심, 보건성 중앙의약품관리소 기사 김영철은 들끓는 전투장에서 청춘의 구슬땀을 바치면서 지원사업을 잘하였다.

남포시회사감독처 노동자 김성일도 성의

있는 지원으로 고산과수농장능력확장공사에서 위훈을 창조하고있는 돌격대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황해남도물길공사장에 달려나간 중앙은행 평양시 중구지점 회계원 장경화는 로력투쟁에 헌신하면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려 대자연개조공사를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를 언제나 훌륭히 수행하며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할 의지를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 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19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는 김정은명도자께서 9차 전국에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 판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었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그들에게 따뜻이 답례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문학예술부문 공로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며 그들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애국가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여성독창과 방창 《사랑에 대한 생각》, 경음악 《백두의 말발굽소리》, 경음악편곡 《세계명곡들을》, 여성4중창 《달려가자 미래로》, 중곡 《인민은 일련단심》 등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 연 이 끝 나 자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출연자들을 몸가짜이 부르시어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으며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판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중국의 《참고소식》, 《길림신문》,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인터넷뉴스, 우간다신문 《더 뉴 비전》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대성산종합병원을 돌아보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중국의 《로녕신문》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오종훈7면대최초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중국, 베트남, 인디아, 우간다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20일과 21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보도는 김정은명도자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살림집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는 구조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것은 조선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치하하시였다.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층을 바치기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지금 건설하고있는 살림집을 축으로 대동강변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옹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면서 다음해 태양철까지 건설을 끝내자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명도자께서는 조선로동당창건기념일까지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을 완공하여 교원, 연구사들에게 안겨주자고 강조하시였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봉황 위성TV방송, 인터넷뉴스, 프랑스의 AFP통신, 영국의 로이터통신, 미국의 VOA방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이 소식을 보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깨뜨만두

베 팔 대통령 박사 람 바란 야다브각하

나는 내팔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오랜 력사적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날로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28일 평 양

아이디스 아바바

에리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대통령 박사 몰라투 레쇼메각하

나는 에리오피아련방민주공화국 국경선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친선적인 에리오피아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3(2014)년 5월 28일 평 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42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를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임철웅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세 포 전 역 에 조 선 속 도 창 조 의 불 길 세 차 게 라 오 른 다

백두산혁명강군의 공격정신으로 힘차게 전진

당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사회주의정권 대지로 전진해 오고 있는 드넓은 세포전역에서 우리의 영웅한 군인건설자들은 흐르는 날과 달을 어떻게 맞고보고있는가.

우리는 이번 불철전투기간에 불가능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조선 속도창조의 광채를 이어가며 계숙혁명의 한길로 힘차게 내달려 온 조선인민군 주동철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찾는다.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군장병들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주요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힘을 계속 밀어내 대고조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불철전투목표를 세우던 날 부대의 지휘관들은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어머니조국이 우리들의 투쟁 모습을 지켜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기어이 결사판결하여 세포망에 강성혁명의 새분을 남기지 않으려 하고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차넘치게 하자.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신장의 절의로 세하게 불타고있었다. 사실 부대가 불철전투기간에

조선인민군 주동철속부대의 군인건설자들

수행해야 할 과제는 참으로 어렵게되었다.

적의 폭탄을 새로 뿌려야 할 현역은 현역보다 더였고 수백명의 살림집과 집집승우리들도 건설해야 하였다. 그중에서도 먹이풀이 뿌리는 가물이 지속되는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며 해야 하는 매우 중요하고 책임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지휘관들의 얼굴마다에는 신심과 각판이 넘쳐있었다.

《조선은 걸심하면 한다는 철석의 신념을 안고 떨쳐나설 때 승리는 언제나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명령을 기어이 결사판결하여 대규모 축산기지건설완공의 날을 하루 빨리 앞당기자.》

방안을 짜려면 울리는 부대 지휘관의 목소리는 모두의 마음을 더더욱 격동시켰다.

지휘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을 결사판결하였다는 오직 하나의 지향으로 심장을 불태우던 못매별일이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되새기며 전투과제를 무조건 수행할 열의를 가슴에 품었다. 그들의 가슴속에는 이런 신장의 절의로 세하게 불타고있었다. 사실 부대가 불철전투기간에

대척이 취해지고 일부 자재들이 확보된 조건에서 건축목공사를 동시에 내밀기로 하였다. 한마디로 립체를 벌리기 위한 작업이 새워졌다. 이것은 모든 지휘관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았고 즉시 실천에 옮겨졌다.

드디어 전투가 시작되었다. 군인건설자들은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기어이 앞당겨 실천할 의지를 더욱 가다듬으며 일제히 전투에 진입하였다. 놀라운 광경이 전투장마다에 펼쳐졌다. 전투장들에 전개된 방송전차들이 방사포의 일제사격과 같은 열력을 과시하였다. 붉은기일이 펨펨 휘날리는 전투장은 그 어디까지나 지리한 격전을 방불케 하였다. 전진하는 대오의 앞에서는 언제나 부대지휘관들이 서있었다. 이들은 단계별전투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데 기초하여 작업조작과 지휘를 면밀하게 해나갔다. 또한 들끓는 전투장들을 하나씩 타고나와 작업의 선봉자를 바로 정한 다음 현실성있는 방송을 부대에서는 놓치지 않았고 그것을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을 결사판결하고 나서도 매우 결사판결의 투사들인 군인건설자들은 충성한 기세로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류, 모든 단위에서 집단적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사상공세작전을 힘있게 벌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인민대회에서 하신 강령적연설의 구절구절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세포군사단 정치부 일군들의 심장은 세차게 끓었다.

비 약의 불화를 지퍼 올리기 위한 목소리 높이 울려 전투장마다에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런 결심을 하고 더욱 분발해나선 정치부 일군들은 분철전투를 앞두고 그 실천을 위한 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갔다. 우선 선동원들의 사업을 방법론있게 잘하였다.

정치부에서는 선동원들에 대한 집중적인 강습을 조직하였다. 강습은 백두산철위인들의 위대성과 현시당의 방침들에 대한 학습, 선동사업의 본질, 선동원이 지니야 할 자질과 품성, 선동활동방법과 경험 등을 배워주기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리고 해설담화와 선동연설, 정황선동, 시와 노래를 통한 선동, 속보쓰기 등의 견양수준을 한데 묶어 주어주는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특히 모든 선동원들이 이 기간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제나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가 높이 울려오라고 날마다 혁신자태들이 늘어났었다.

정치부에서는 방송전차에 의한 정치사업과 기계에술선동대활동, 직판선전, 예술소공공연 및 문학예술작품창작경연, 새로 나온 노래와 군중무용극사업을 진행하여 전투장마다에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와 함께 전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될 때 대한 당의 의도에 맞게 모든 일군들이 불철전투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하였다.

정치부에서는 일군들부터가 군중문화사업에 대한 올바른관점을 가지고 대중체육과 예술활동에서 언제나 불철전투들의 기율이 되도록 하였다.

사상의 포문을 열고 집중포화, 편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댄 정치부일군들의 다색 사상공세는 그대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는 거센 불꽃이 되었다.

일군들의 일본에서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도록 격려대원의 열의는 더욱 높아졌으며 전투장마다에서는 새로운 조선 속도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우리와 만단 정치부의 일군인 리성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사상일군들이 사상전의 원바람을 일으킬 때 대중의 정신력은 총폭발되며 전투장마다에서는 1970년대의 약동하는 기상이 차넘치게 된다.



-조선대양총회 사절대에서-

최고재판소의 일군들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조국이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내어 조국을 만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었다. 예고도 없이 최고재판소의 당책일군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나타났다.

그때 얼마 안되어 각 도 재판소의 일군들도 변방으로 도착하자 돌격대일군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이유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온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돌격대에게 넘겨준 이들은 당책일군들을 따라 작업현장과 돌격대원들의 현실을 차례로 돌아다보았다. 그리고는 돌격대지휘부에서 돌아와 굳은 의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건설자재와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 당면한 작업의 자연फल구역에 심을 나무모를 사들여 해결하라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돌격대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때야 돌격대일군들은 그가 현장에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되었다. 바로 모든 일군들이 현장을 직접 밟아보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야 하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회의회를 마치고서 당책일군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부터가 앞장을 메고 완공의 그날까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진호에 서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진심을 다 바쳐

비약을 일으키는 사상공세

세 포 군 사 단 정치 부 에서

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풀이 주어 그들이 선동사업에 힘을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또한 선동원들에게 메카폰과 포전방송기제도 체내에 갖추어 주어 그들이 현장정치사업을 최전선으로 벌여나갈 수 있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음날 수행해야 할 작업과제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선동준비정형에 대한 료해도 자주 진행하여 현장정치사업의 필요성을 최대도 높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었다. 품을 들인 것만큼 결과가 그 이상으로 나타났다.

들끓는 전투장마다에서 선동원들은 돌격대원들에게 사회주의수호전의 본질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의의와 중요성을 해설해주는 최전선선동원들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그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한몫을 담당하였다.

특히 모든 선동원들이 이 기간에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의

드세찬 경쟁열풍 몰아친다

인민보안부들려 대 평양시인민보안국대대에서

공사에 지장이 있을세라 발이 닳도록 뛰고 도둑피 차재보장을 적극 따라세우는 군관 황영남, 리명훈동무들의 모습도 볼수 없었다.

벽체쌓기는 벌써 마지막계선을 가까이하였다.

벽체축조상태를 간간히 살펴본 리명훈동무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다.

《합격이요, 이런 속도로 계속 냅다 달리지.》

이렇게 말하며 엄지손가락을 내미는 군관 석영수동무를 바라보는 현신자사관들인 김성민, 조명철, 우명수동무들의 얼굴에 더 기쁨이 어린다.

드디어 벽체쌓기를 끝낸 군인건설자들이 기쁨에 겨워 서로

주목되는 흙보산비료생산방법

금강지도국들려 대에서

위 대 한 령 도 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일군들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실지 은을 벌수 있게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착실하게 해야 합니다.》

금강지도국들려 대의 흙보산비료생산방법이 독특하다.

한것은 이 방법이 질 좋은 흙보산비료의 생산은 물론 보편에서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얼마전 우리의 만단 이곳 돌격대일군인 최윤복동무는 정치일군인 윤영수동무가 비닐막을 리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기발한 착상을 내놓았다. 이 방법이 실천에서 큰 은을 내고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비닐막을 리용하여 흙보산비료를 생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겉으로 된 비닐막을 일정한 길이로 자른 다음 한쪽 끝부분을 겉으로 매추어 주머니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그안에 혼합한 원료를 250~300kg 정도씩 넣은 다음 주머니의 옷부분을 공기통하게 밀어넣어 주머니를 누르면 후날에 비로 나오게 된다.

또한 차단능력이 좋은 비닐주머니안에서는 비료성분을 그대로 축적할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비가 오거나 바다에 물이 고인 상태에서도 흙보산비료를 안전하게 보관할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이 방법은 로력을 절약하고 운반비 리용과 보편이 편리하며 비닐막을 여러번 회수 리용할수 있는것을 비롯하여 매우 실용적이었었다.

이처럼 효과적인 흙보산비료 생산방법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현장에서 열린 회의

경애하는 김정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은 앉아서 나라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조국이 될것이 아니라 자기 한몸을 내내어 조국을 만드는 참다운 애국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이었다. 예고도 없이 최고재판소의 당책일군들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 나타났다.

그때 얼마 안되어 각 도 재판소의 일군들도 변방으로 도착하자 돌격대일군들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이유도 성의껏 마련해가지고 온 여러가지 지원물자들을 돌격대에게 넘겨준 이들은 당책일군들을 따라 작업현장과 돌격대원들의 현실을 차례로 돌아다보았다. 그리고는 돌격대지휘부에서 돌아와 굳은 의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건설자재와 돌격대원들의 생활조건보장문제, 당면한 작업의 자연फल구역에 심을 나무모를 사들여 해결하라는 문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는 돌격대원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그때야 돌격대일군들은 그가 현장에 찾아온 사연을 알게 되었다. 바로 모든 일군들이 현장을 직접 밟아보면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야 하는가를 스스로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날 회의회를 마치고서 당책일군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우리부터가 앞장을 메고 완공의 그날까지 언제나 돌격대원들과 한진호에 서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에 진심을 다 바쳐



-합명점 나무터에서-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

알렉산드르 제모딘 주조 로씨야연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 성원들이 28일 친리마구역 조선로씨야친선 고창협동농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침참에 그들은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예술소품공연을 하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로씨야와 조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하나인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성과를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조선의 최고령도자께서 제시하신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농장이 매우 큰 성과를 거두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물자를 넘겨주었다.

시대의 전형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에서 창조한 모범

재령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대의 전형들을 내세워주고 따라배우기 위한 사업이 당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에서 힘있게 벌어져 있었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시대의 전형들을 따라배우고 그 대열을 넓혀나가기 위한 사업도 실속있는 총화사업이 안착될 때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군당위원회는 근로자들의 활동정향에 대한 총화를 편질물을 만들어 보여주는 방법으로 하였다.

백년되는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고 편질물을 통한 총화사업에서는 경험의 일반화하고 근로자들을 잘 도와준 일군들이 보여주었다.

군당위원회는 또한 근로자총화방송모임도 해마다 의의있게 조직하였다.

세로 선출된 근로자들의 긍정 자료를 가지고 편질물을 만들어 보며 경험론론에도 참가시키고 근로자들을 잘 도와준 일군들을 총화방송모임에 내세웠다. 이것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을 높은 사업실적으로 만들어 준 영예와 긍지를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라 총정향의 한길을 여세계 걸어가길 결심을 더욱 가다듬게 하였다.

결과로는 좋았다. 정모양 논벼 4번에 내지 못하는 포전에서 9t 200kg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이 농장을 본보기단위로 만들고 일반화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다.

군당위원회 비서 변명복, 부원 강영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농장에 나가 살다시피 하면서 시대의 전형들을 따라배우는 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벌여나갔다.

중요기념일을 맞이해 근로자들에게 대한 가정방문도 조직하고 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세라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었다.

농장원들속에서 서로 돕고 이끌어 정모양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치밀한 경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부지협동농장에서만도 여러명의 근로자들이 배출되었다.

오늘 재령군에서는 70여명의 근로자들이 자기 맡은 초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으로 만들어가고있다.

시대의 전형들을 찾아내어 더 큰 위훈으로 떠밀어주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온 일군들이 사상이 더 보나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

리뜨바에 가는 철도성대표단 출발

리뜨바에서 진행되는 철도 협조기구 제42차 상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전철수출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철도성대표단이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평양역에서 원철종 철도성참모장과 양약원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경제무역참사가 전송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역적패당의 반인륜적죄행은 세월이 흘러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어용언론의 허위보도, 배후는 청와대

최근 남조선에서 KBS방송이 청와대의 지시와 배후조종에 따라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보도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 커다란 사회적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사 고 초기 실종자구조작업에 동원된 불과 수십명밖에 안되는 잠수부 수를 당국자 견내준 자료에도 수 백명으로 둔갑시키고 실재한 신체진입을 성공으로 보도하였는가 하면 박근혜의 진도행각은 특보로 다루면서도 그에 거센 항의를 들이던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 어용방송의 어처구니없는 거짓보도, 박근혜 비호보도에 환멸을 느낀 단원고등학교의 한 학생은 앞으로 기자가 될 꿈마저 버렸다고 한다.

《KBS》의 위독남조보도에 깊숙이 관여한 것은 다음이던 청와대였다. 그 내막을 《세월》호참사의 전 보도국장 김시곤이 폭로하였다. 원래 이자는 당국의 앞잡이였다. 그는 《세월》호참사로 하여 궁지에 몰린 박근혜를 도울 심산으로 이번 참사로 죽은 사람이 많았지만 사실 년간 교통사고사망자수에 비하면 그리 많은 것이 아니라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격분을 금치 못한 피해자 가족들은 즉시 《KBS》본사를 찾아가 김시곤의 파면과 사장의 사과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김시곤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여러 사고들에 대한 각성도 높아야 한다는 취지로 한 발언

이라고 변명하면서 종시 사과를 거절하였다. 하여 지난 8일에 합동본향소를 찾았던 《KBS》방송사 직원들이 분노한 유가족들에 의해 5시간이나 구류되어 못매를 맞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들은 김시곤이 직접 조문하라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야당의원들까지 청와대를 항의방문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저들이 강제로 지시할 권리가 없다고 하면서 꼬리를 사리려고 《KBS》방송사측도 김시곤을 구구 비호 두둔하였다.

하지만 사태는 갈수록 악화되어 결국 지난 5월 9일 김시곤은 사퇴의사를 표명하지 않음으로써 사태는 그 시대의 사표이며 《세월》호참사로 가족이나 협박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청와대와 《KBS》방송사장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데 있다.

상급으로부터 사퇴압박을 받은 김시곤은 결국 성향과 남은 것이 되고말았다. 그는 실직 썩 먹다 처버리는 자들에 대한 반발 목소리를 사퇴의사를 밝히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였다. 사장 김환영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보도에 사적인 개입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다. 김시곤은 자기가 직접 작성한 사장의 언론보도개입증거자료를 공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김환영은 지난 5월 3일 《KBS》방송의 9시보도에 새 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보도본부에 전화를 걸어 그것을 빼라고 지시하였다. 6일 9시보도에서도 어느 행사에 참가한 박근혜가 《세월》호참사로 슬픔에 잠겨있는 것처럼 연출한 장면을 뻔뻔하게 보도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시곤은 김환영이 지난 5월 1일부터 8일까지 기간 보도본부장을 직접 찾아가 해양경찰에 대한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여러차례 보도에 개입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KBS》방송사는 김시곤의 이 폭로발언도 그 날보에서 취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김시곤의 구미에 맞으면 보도도 그 때그 때 일면 배려하면서 여론을 오도해온 《KBS》방송사의 어용나팔수로서의 정체는 날이 더러웠다.

이런 속에 지난 11일 청와대에 갔던 백운기라는 인물이 다음날 《KBS》방송사의 새 보도국장으로 임명되면서 여론의 이목은 청와대로 쏠려갔다. 언론들은 백운기가 청와대 홍보수석과 가깝고 그가 청와대에 불려왔던 다음날 보도국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볼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며 분명 청와대의 《파산산인사》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환영이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를 김시곤에게 맡겼다는 김환영의 파면치한 양말들은 민심의 분노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고조되고 있는 시국선언운동

남조선에서 《세월》호참사를 빚어낸 피의당국을 단죄규탄하는 시국선언운동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는 5월 20일 서울대학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여 박근혜와 피의당국을 신랄히 규탄하였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발표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결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책임을 전세로 넘겨주며 해양경찰에게만 넘겨주며 해양경찰청체제를 전면으로 들고 나오는 것은 《정권》안보를 위한 《도마뱀 프리자크》라고 비난했다. 그들은 박근혜가 이번 참사의 책임을 지고 퇴진하며 특별조사위원을 설치하고 기업체에 대한 규제완화와 공공기업에 대한 민영화추진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의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부패한 관료들의 무책임과 사후, 상상력의 빈곤으로부터 초래된 결과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불의에 대해 방관도 침묵도 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하였다.

남조선에서 대학교수들의 시국선언문발표가 계속되는 속에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운동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전남대학교 총학생회는 얼마 전 시국선언문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총학생회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는 진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상황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과 민중의 정당한 요구와 주장이 《총독》으로 물러나는 오늘날의 현실은 지

민주로 총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4일 서울에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여 반《정부》투쟁을 벌였다.

단체지도부 성원들과 산별연맹 위원장들, 로조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그들은 참사의 책임을 외면하는 피의당국에 대한 분노를 안고 《박근혜는 퇴진하라》, 《고체치며 청와대방향으로 시위행진》을 벌였다.

반《정부》투쟁 전개

과소경찰이 갈을 가로막자 그들은 보신각앞 도로에서 통성투쟁에 돌입하였다.

폭압이 광분하며 과소경찰이 투입됨을 뚫고 나섰던 참가자들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참사를 초래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외치는 피의당국에 대한 분노를 규탄하며 항쟁을 계속했다.

이에 앞서 민주로총과 산별단체들은 남조선 각지에서 결집 집회를 가지었다.

풍자만화를 통해 본 남조선의 민심(2)

뻔뻔스러운 음모군, 흉악한 독재자



첫번째 만화에서 박근혜는 《세월》호참사유가족들앞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 몇명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마치 《사과》하는가 하면 합동본향소에서는 이미 전 각본에 따라 피해자유가족이 아닌 정계불명의 할머니를 꺼안고 위로하는 연극을 하고 있으며 사고수습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찾아가는 유가족들의 길을 경찰베스로 막아놓는 장문을 내다보며 사회불안과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행위에 대책을 세우라고 고야내고 있다.

두번째 만화에서 박근혜는 애어린 자식들을 총지에 넣고 슬픔에 우는 유가족들을 보며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의 재산을 자기 예비, 예비의 주권과 동등이 하고 있다. 만화는 박근혜가 《예용환》이니 뭐니 하지만 사실 그의 생각을 《세월》호참사가 아니라 민중을 복수하고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모면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번째 만화는 각계각급 《구조된 인원 0》, 《책임감도 0》, 《진정성 0》 등의 신랄한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려 울상이 된 박근혜와 맹물단지같은 그에게 정보원과 경찰, 검찰패거리들이 반《정부》세력을 모조리 숙청해서 《0》로 만들겠다고 합창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네번째 만화는 2013년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방충장막을 하지 않았다고 인민들앞에 참뺨같이 악착했던 박근혜가 《세월》호참사 사고로 최악의 궁지에 몰리우게 되자 《KBS》방송사장 김환영에게 정계찰에 대한 비난보도를 하지 말며

리우도 0》 등의 신랄한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려 울상이 된 박근혜와 맹물단지같은 그에게 정보원과 경찰, 검찰패거리들이 반《정부》세력을 모조리 숙청해서 《0》로 만들겠다고 합창하는 꼴을 보여주고 있다.

네번째 만화는 2013년에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아 방충장막을 하지 않았다고 인민들앞에 참뺨같이 악착했던 박근혜가 《세월》호참사 사고로 최악의 궁지에 몰리우게 되자 《KBS》방송사장 김환영에게 정계찰에 대한 비난보도를 하지 말며

교원들에 대한 탄압책동에 항의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2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교원들에 대한 피의당국의 탄압책동에 항의하였다.

단체는 교육부가 《세월》호참사참사책임이 박근혜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투쟁에 나선 전교조

남조선대학생들 항의투쟁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세월》호참사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남조선대학생들의 투쟁이 연이이 전개되고 있다.

22일 서울 피의정부청사에 남조선대학생들이 진입하여 통성투쟁을 벌였다.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행동하는 대학생들이라고 밝힌 그들은 수백명의 무고한 생명이 바다속에 가라앉는 것을 눈뜨고 지켜만 보면 시 구해지지 않는 박근혜의 반인륜적살인행위를 격분해 넘쳐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어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할 것을 주장하였다.

세계의 랑심앞에 낯을 붉히라

세계의 이불난 한 작가는 이렇게 말한바 있다. 인간은 얼굴을 붉히는 혹은 붉힐 필요가 있는 유일한 존재이다.

낯을 붉히라.

일본인이란면 그가 누구이든 과거 일제시기의 범죄행위를 대함에 있어서 얼굴을 붉혀야 한다. 일본의 정사를 피우지한다는 정치인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마땅히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과거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그에 따르는 사회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국제사회의 요구이며 일본정부가 지닌 도덕적의무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은 이 역사적과제를 외면한채, 군국주의고삐를 풀지않는채 군국화, 우경화조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일본우익회 공동대표인 오사카시장 하시모토가 기자회견에서 황당무계한 망발을 늘어놓았다. 국민이 위안부제도를 알수 있게 됐다면 댕댕스름을 일으키라니, 역사문제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것을 들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는것은 당연하다니 뭐니 하는 소리를 공공연히 뱉었다. 그러면서 이 발언으로 하여 정권운영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고까지》 원수를 썼다.

이것은 하시모토가 일본군위안부제도는 필요했다는 1년전의 망언을 되풀이한것으로서 인부들을 두둔하지 유죄해 하고 과거범죄를 또다시 부각하는 망발이다.

바로 현재진 하시모토는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도저히 상상할수 없는 망언보따리를 풀어놓았다. 총탄이 밀어대니는 곳에서 위안부제도가 필요했다는 당시 세계각국위안부제도를 가지고있었다는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낱말을 불어대어 국제사회를 경악케 했다가 바로 하시모토이다.

하시모토는 지난 한해동안 일본군성노예범죄 등 과거 일제가 저지른 특대형인륜범죄행위를 미화보안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었다. 결국 이번 에 또다시 그 무슨 위안부제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같은것을 떠들며 《대행스름을 일으키라》니 뭐니 하는것을 또다시 하는것을 목도해왔다.

하시모토는 일본군위안부들을 모독하는

단 평 등치고 간 빼먹는 《자선사업》

최근 미중양정부국이 파키스탄에서 완전 예방접종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노라고 황송수할하였다. 사회의 뜻이 담긴것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일종의 맹이라고 해야 할지 짐작이 힘든 어려송한 말이다.

그러한 한 일이 있다.

미국은 3년전에 파키스탄에서 B형간염 완전예방접종사업을 벌였었다. 그러면서 마지못 파키스탄사람들을 위해 《자선사업》을 하는것처럼 생색을 내었다.

그러나 실지로는 그 《자선사업》자체가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미국이 구비밀리에 벌인 군사작전의 한 고리였다. 미중양정부는 현지의사들을 리용하여 어린이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살해대상의 자식들을 찾아냈다. 그들을 통해 살해대상의 거처지를 확인한 미국은 파키스탄정부도 모르지 비밀적으로 미군특수부대를 투입하여 살해작전을 성공시켰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수많은 파키스탄사람들이 분노하였다. 미국이 자기 나라 땅에서 파키스탄사람들을 위해하는것 하면 실지로는 제 리수를 치려는 범죄적행위를 서슴없이 저질렀다는것이다. 파키스탄에서는 의사들을 미국의 앞잡이로 보면서 같은 도저히 믿을수 없는 소리이다.

미국이 그런 못되고 너절한 버릇은 죽어 야만이 고칠수 있다.

리 경 수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공기오염은 세계 보건기구가 정한 안전수치보다 40배나 초과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중국의 500개 대도시가 1%만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수치가에 도달하고있을뿐이라고 보고서에 밝혔다. 중국의 도시지하수의 약 90%, 강과 호수의 70%가 오염된 상태라고 한다. 지난 4월 중국의 신화통신사는 2013년에 전국적으로 203개 지역들에 대한 지하수 수질검정결과 60%가 오염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중국에서 120만명이 공기오염으로 사망할것으로 공기 질 오염으로 호흡기질병, 및 소화계통암환자가 급격히 증대되었다고 한다.

심각한 물오염은 농업에도 부정적영향을 미치고 농경지의 사막화를 촉진하고 있다.

어느 한 나라의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토양오염조사가 진행되었다. 결과 농경지의 19.4%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 동물의 중금속이나 유기물질이 검출됨으로써 토양오염이 심각하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중국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는 중국 총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630만km에서 중금속과 유기물질오염상황을 조사하였다. 결과 수질지대와 초원, 건설용부지 등을 포함한 토양전체에서도 16.1%가 오염된 상태에 있었으며 《상황은 심각할 수 없다.》고 위기감을 표명하였다.

중국당과 정부는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임무로 확정하고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다.

얼마전 중국은 환경보호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한 고위간부는 환경보호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은 대중의 건강을 담보하고 생태문명건설을 추진하며 경제 및 사회의 지속적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 제정된 환경보호법을 잘 실천하고 관철하고 실시하여 사회주의생태문명건설을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한 인터넷 홈페이지는 환경보호법수정안 채택에 대하여 중국지도부가 드디어 수시건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초래하는